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 복음기도신문

## Gospel Prayer Newspaper

한국어판 [www.gnpnews.org](http://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http://english.gnpnews.org)  
일어판 [www.gnpnews.net](http://www.gnpnews.net)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십자가 사랑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성도를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 방글라데시 무슬림, 박해 위협에도 기독교로 개종

### CFI, 지난 6년간 개종한 무슬림 9만 여명

총 인구 1억 6500만 명 중 약 90%가 무슬림인 방글라데시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슬람 교인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다른 무슬림 국가들과 같이 방글라데시에서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끊임없는 핍박과 살해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지만, 최근 인권단체 ‘크리스천프리덤 인터내셔널(Christian Freedom International, 이하 CFI)’은 지난 6년 동안 방글라데시 전역에서 9만 1000여 명의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것으로 추정했다.

무슬림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후 1990년대 중반부터 복음을 전파해 온 파루크 알-아메드 목사는 영국 뉴스사이트 ‘익스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방글라데시 북부에 위치한 우리 공동체에서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알-아메드 목사는 “쿠리그램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원래 크리스천이었던 한 가정과 무슬림 배경의 한 가정만 있었다.”며 “지

금은 무슬림이었다 회심한 150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역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더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기독교 박해를 감시하는 선교 단체인 오픈도어즈UK는 “교회들, 특히 무슬림 배경의 신자들이 만나는 가정교회는 발각되지 않기 위해 기독교적 상징을 결코 노출시키지 않으려 한다.”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러 형태의 핍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GNPNEWS]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역대하 7:16)

**기도** | 살아계신 하나님. 죽을 죄인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삼으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방글라데시의 모든 성전 가운데 머물러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소서.

 복음기도 포토에세이

##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 필리핀 바자오족의 한 마을에서

**한 아이**가 열기설기 걸쳐져 있는 널빤지를 조그만 발로 간신히 딛고 서 있다. 한 손으로 험겁게 고정된 나무를 붙잡고 있는 모습이 불안하기 그지없다. 발 아래로 수면 위에 가득한 쓰레기가 보인다. 저 물은 얼마나 깊을까?

자신에게 맞지 않는 큰 옷까지 입은 이 아이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보인다. 이것은 언제 떨어질지 모를 영원한 고통의 무저갱 바로 위에서 한 구원자의 전적인 은혜를 기다려야 하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우리를 최악의 쓰레기 더미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의 낡은 죄의 옷을 벗기시고 그 아들로 거룩한 옷을 입히셨다. [GNPNEWS]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욥기 33:24)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16)

## 행복한 삶을 원하고 계시군요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이같이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모았다. 겨자씨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마음에 불평불만이 있습니까?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행복을 원하고 계시네요. 당신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인 돈, 건강, 성공, 명예가 없어지면 불행하다고 느끼시나요? 또 이런 조건들이 계속 유지되면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금방 식상해지고 더 많이 가지길 원하지 않을까요?

이런 조건들이 완벽히 갖추어지지 기도 어렵지만,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욕심은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이런 것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누리는 이 행복을 당신에게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행복한 이유는 너무도 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 하나님을 싫어하여 그분을 떠났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를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전 그분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저와 함께 하시기 위해 죄인인 제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그분의 독생자를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나의 생명이 되어 사는 이 행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천국으로 저를 인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불평불만의 삶을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당신도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GNPNEWS]

### INSIDE

**02** 뉴스 | 한국 다음세대가 다음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다

**03** 기획 | 인도 힌두정당 출현 이후 기독교 박해 “심각”

**05** 인터뷰 | 김정화 선교사 “궁핍사역 통해 고아와 과부를 섬기고 있어요”



**06**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김용의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할 자 누구인가?

**08** 뷰즈인 시네마 | ‘나의 선택 - 잊혀진 가방 그 못다한 이야기’

한국

# 다음세대가 다음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다

### 헤브론캠프 이어 8월에도 청소년복음캠프, 청소년복음수련회 잇따라 열려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시다.” “내가 비참한 모습으로 텅 빈 바구니를 안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주제로 지난 7월 초에 열린 헤브론캠프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또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나누며, 복음의 삶으로 돌아갈 것을 권고했다.

역을 전심으로 섬겨, 보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와 함께 강의 중간중간 성경 이야기를 재구성, 학생들이 직접 작사·작곡한 노래와 대본의 스킷 드라마를 전교생이 참여하여 뮤지컬 형태로 공연, 훈련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100여 명이 참석, 주님의 말씀 앞에 섰다.

헤브론원형학교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린 2016년도 헤브론 캠프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어린 강사나 또래 훈련생에게도 제한받지 않고 선포되며 또 받아들일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캠프 기간 중 이 학교 학부모들은 다음세대가 복음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주방에서 전심으로 섬겼다.

이번 캠프에 참가하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해왔다는 한 형제는 “복음의 진리 앞에서 내가 어떤 죄인이며, 이런 죄인에게 어떤 복된 소식을 주셨는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복음의 영광과 능력, 축복을 16개의 강좌로 구분하여 제시된 캠프에서 이 학교 고학년 학생들은 자신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실제 삶에서 경험한 복음을 3박 4일간 담대하고 거침없이 나눴다. 저학년 학생들은 또 청소년 등 각종 섬김 영

이같은 훈련과정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의 진리가 실제된 삶을 갈망해왔던 청소년들

한편, 8월 1일부터 5일까지 제8기 청소년복음캠프(cafe.naver.com/goodnewsprayer)가, 8월 8일부터 12일까지 제14기 청소년복음수련회(cafe.naver.com/youthgmr)가 문광교회(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서 열린다. [GNPNEWS]

중동

## 이집트서 반정부 성향 인물, 수만 명 실종·수감 중



▶ 중무장한 이집트의 국가 안보국(NSA) 보안군의 모습(출처: 국제 엠네스티)

이집트의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 체제 하에서 반정부 성향의 인물 수백 명이 실종되고, 최소 3만 4000명이 수감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가 홈페이지를 통해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엘시시 정권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보안부대에 의해 집을 수색당하거나 납치돼 사라지고 있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상태에서 수개월씩 감옥에서 손발이 묶이고 눈이 가려진 채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엠네스티는 밝혔다.

엠네스티는 현지 비정부기구(NGO) 말을 인용해, 하루 평균 3~4명이 보안군에 의해 끌려가 종적이 묘연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 많은 사람이 재판도 받지 않은

보고서는 지난 1월 보안군에 끌려갔던 14세 소년 아세르 모하메드의 경우 온몸에 전기고문을 받는 등 실종된 34일 동안 온갖 고문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14세 정도의 어린이를 포함해 학생, 정치활동가, 사회운동가들이

엠네스티는 특히 지난해 3월 보안군 조사 책임자로 마그디 압델가파르가 임명된 이후, 위와 같은 실종 및 고문, 피살사건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집트 보안군은 호세니 무바라크 독재 시절 권력남용과 고문 등으로 악명이 높다. [GNPNEWS]

한국

## 선교한국 2016 대회 8월 1~6일까지

국내 최대 청년·대학생 선교축제인 ‘선교한국 2016 대회’가 8월 1일부터 6일까지 5박 6일간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열린다.

선교기획 전시관 미션 콤플렉스와 선교 한마당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선교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문의 ☎ 02-563-2468, missionkorea.org [GNPNEWS]



‘그런즉 우리도(Let us, then)’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올해 대회는

##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7.3 ~ 7.23)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궐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 이슬람권 성월 라마단 5일 종료…‘사후에 한 번 테러’

무슬림(이슬람교도)이 지켜야 할 5가지 의무 중 하나인 단식 성월 라마단이 5일(현지시간) 종료되었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이번 라마단 기간에는 언론에 보도될 만큼 굵직한 테러만 줄잡아도 한 달간 사후에 한 번쯤 세계 곳곳에서 테러가 벌어진 셈이라고 전했다.

주님, 허탄한 거짓에 속아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는 무슬림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테러로 피차에 자멸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만이 영원한 구원이 되소서.

### 미국 델러스 ‘흑인 사망’ 항의시위 도중 총격으로 경찰 5명 사망

미국 델러스에서 7일 밤(현지시간) 백인 경관들의 총격에 의한 흑인들의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 도중 4명의 저격범들이 경찰을 향해 발포해 5명의 경관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미국의 인종갈등 가운데 함께 하여 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소서.

### 중국 흥기 난동부린 남성…‘인생이 재미없어서 묻지마 살인’

최근 쓰촨(四川)성에서 한 남성이 행인들에게 흥기를 휘두른 사건이 총 3건이나 발생했다고 중국 인민망이 최근 보도했다. 한 용의자인 30대 남성 장씨는 “인생이 지루했다”면서 “스릴 있는 것을 찾고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말세의 고통하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소망 없이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는 영원한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GNPNEWS]

한국

## ‘경건의 열망 30일 기도정보’ 8월분 배포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경건의 열망’을 위한 기도가 10월까지 진행된다. 새롭게 발간된 8월분 제3권 ‘경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기도 정보집을 가지고 교회나 기도모임, 가정, 개인이 자유롭게 기도에 참여할 수 있다.



기도 정보집은 뜻 있는 분들의 헌금으로 제작, 무료 배

포된다. 문의 ☎ 010-2798-4641 (복음기도동맹 사무국) [GNPNEWS]

##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6년 7월 5주 ~ 8월 1주

- 7월 5주(8.1~8.6)**
  -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 (전\*\*) 010-5337-2771
  - ▶광주 북구 / 십자가사랑교회 (김\*\*) 010-6280-4419
  - 8.1~8.6(14시~19시)**
    -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 010-4510-1070
    - 8.4~8.6(08시~20시)**
      - ▶인천 서구 / 베데스다공동체 (송\*\*) 010-7322-5456
      - 8.6(06시~18시)**
        - ▶서울 관악 / 신림감리교회 (강\*\*) 010-3751-0493

- 8월 1주(8.8~8.13)**
  - ▶인천 부평 / 청천교회 (강송덕) 032-521-6541
  - 8.14~8.15(07시~19시)**
    - ▶전주 완산 / 전주은혜교회 (정\*\*) 010-4272-9905
    - 8.11~8.13(08시~20시)**
      - ▶인천 서구 / 베데스다공동체 (송\*\*) 010-7322-5456

**기도참여 문의**  
 기도24:365본부 느헤미야52팀 ☎ 070-4803-9026~7, 010-4192-4365 www.prayer24365.org



# “인도, 힌두정당 출현 이후 기독교 박해 “심각”

## 집권 첫 해 연간 600건 폭력 구타하며 기독교인 핍박

인도의 극우 힌두정당 인도인민당(Bharatiya Janata Party, 이하 BJP)이 최근 의회선거에서 전통적으로 약세였던 동북부 지역에서 승리를 거두며 범(凡)인도 정당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힌두 민족주의를 지향하며 기독교 개종금지 정책 등 타종교 억압을 노골적으로 펼치고 있는 정당이 정치기반을 넓혀감에 따라 인도 기독교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 5월 인도인민당은 동북부에 위치한 아삼주 의회 선거에서 종전의 5석에서 무려 60석으로 늘려, 대승을 거뒀다. 아삼주에서는 지난 15년간 제1야당인 국민회의당(INC)이 주정부를 이끌어왔다. 인도인민당은 또 공석(空席)이었던 동부지역 벵갈 주에서도 3석을 차지, 크게 약진하며 지지기반을 넓혔다. 인도국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방글라데시 불법 이민 차단, 24시간 공급되는 전력 및 수도 개발, 250만 청년에 일자리 제공 등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공약을 내걸어 유권자들의 마음을 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교민족주의가 인도의 주요 기독교 박해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점으로 볼 때, 이 같은 힌두정당의 부상을 바라보는 기독교계는 조심스럽다.

힌두교 기반의 극우정당 인도인민당이 집권한 2014년 5월 이후 극우힌두단체 RSS(Rashtriya Swayamsevak Sangh, 민족봉사단) 지부는 불과 3개월만에 2000개나 늘어났다. 인도인민당 집권 첫 해는 이같은 RSS의 활동으로 기독교를 비롯한 소수종교인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증오연설)가 급증했다. 또 BJP 집권 1년 동안 소수종교에 대한 폭력건수는 무려 600건에 이르러 이틀에 3건 꼴로 기독교를 비롯한 소수종교인들이 고난을 당했다.

### 전통적인 카스트제도가 박해 근본원인

인도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수세기 동안 전해 내려온 계급을 뜻하는 카스트제도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존엄하게 인식하는 기독교를 비롯한 타종교는 카스트 제도와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사회는 타종교에 대해 매우 배타적이다. 카스트가 비록 법적으로 무효화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도사회를 잠식하고 있다. 또한 상위계층들에 의해 하위 계층과 불가촉천민 계급인 달릿(Dalit)과 기타 부족에 대한 잔혹 행위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2014년 5월 정권교체로 BJP 대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등장한 이후, 과격 힌두 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도 전역에서 비힌두교 신앙인에 대한 배타성이 심해지면서 소수 종교집단이 잦은 공격을 당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도 침묵하고 있다.

2014년 후반, 힌두교 과격분자들은 가르밋시(Ghar vaps)라 불리는 일명 귀환 캠페인을 벌였다. 이는 무슬림들과 기독교인들을 다시 힌두교로 복귀시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실제로 거대한 규모의 캠페인이 여러 차례 개최되었으며, 이를 통해 수백 명의 인도인들이 힌두교로 재개종했다.

동시에 인도인민당은 국가 차원에서 개종금지법을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개종금지법은 현재 인도 5개 주에서만 시행되는 지방법이다. 그러나 이 법은 오직 힌두교에서 타종교로 개종을 시도하는 사람을 겨냥하고 있다. 기존의 타종교에서 힌두교로 신앙을 채택하는 것은 개종이 아니라 단지 ‘귀환’으로 여길 뿐이다.

### 개종금지법 통해 힌두교 이탈은 ‘불가’



▶ 인도의 기독교인(출처: beliefnet.com 캡처)

현재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할 수 없도록 하는 개종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주는 인도 중부의 구자라트, 마디아 프라데시, 차티스가르, 오리사 주와 최북단의 히마찰 프라데시 주 등이다. 아무나 잘 프라데시와 라자스탄 주에서는 이 법이 통과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타밀나두 주에서는 이 법이 통과됐지만 이후 폐지됐다. 하지만 인도인민당은 개종금지법을 전국으로 확대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마하라슈트라, 조하르한드 주처럼 개종금지법이 없는 곳에서도 이런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에선 기독교인들이 외부에서 전도할 때 감시당하는 것

은 물론 예배 중에도 힌두교도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나 가정예배가 드러날 경우, 심각한 박해를 받는다. 기독교인들이 외부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누군가 관계기관에 제보할 경우, 그 집은 폭력세력과 경찰로부터 습격을 받게 된다. 이때, 전도지나 종교서적이 발견되면 즉시 폐기되거나 압수되며 기독교인으로 확인될 경우 최하계급인 달릿으로 취급받게 된다.

이처럼 인도에서는 힌두교나 이슬람 외에 다른 신앙을 가질 징후를 보이는 것도 위험한 일이 된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어지간한 결단이 아니고는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로 회심하는 일이 어렵게 여겨진다. 인도에서 인터넷으로 기독교 관련정보를 검열하는 기관은 별로 없지만,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은 기독교 관련 자료에 접근하기 어렵다. 일차적으로 전통 힌두교 집안일 경우, 가족들에게 발각되어도 심각한 핍박을 받는다.

비공개 예배모임을 갖는 것도 쉽지 않다. 이웃에 살고 있는 힌두교인들 모두 서로를 감시하고 있다. 국가의 정보원들은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인물들이 자주 모인다고

보일 경우, 경찰에 신고하고 있다. 국가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도 힌두교 배경의 기독교인들은 자녀들 뿐 아니라 개종자인 자신도 힌두교 신자로 등록해야 한다. 힌두교 과격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지역에서는 기독교식으로 결혼하는 것도 공격대상이 된다. 기독교식 장례식도 마찬가지다. 급진 힌두교도들은 기독교 개종자의 장례식에서도 힌두교 식으로 화장하도록 강요한다.

학교에서 기독교학생들이 겪는 어려움도 있다. 힌두교에 기반한 요가나 수리야나마스카(태양송배)를 하도록 강요받기 때문이다. 또 힌두교 배경 기독교인들이 부모에 의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

외에 이같은 사건은 인도 언론들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 개종금지법을 채택한 5개의 주(구자라트, 마디아 프라데시, 차티스가르, 오리사, 히마찰 프라데시 주)

러나 이같은 사건은 인도 언론들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 급진 힌두조직 기독교인 감시

한편, 기독교에 대한 혐오 캠페인과 재개종 장려를 통해 인도에서 위협과 공격을 받는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급진 힌두조직인 상빠리바르는 지역의 기독교인들을 감시하고 있다.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힌두 종교 행사와 지역행사에 빠지려고 하면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힌두교 배경의 기독교인들은 힌두 사회에서 특정 의무나 일반적인 예식 관행에 지속해서 참여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엄격한 재개종운동이 시작되면서 전국에 있는 수백 명의 가난한 기독교인들이 힌두교로 개종하라는 강요를 받기도 했다.

기독교인들은 정부기관이나 민간부문에서도 승진에 제약을 받기도 한다. 정부 혜택이나 보조금 대출 등에서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기도 한다. 라자스탄과 마디아프라데시 주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아예 이름에 ‘이사이(Isai)라는 접미사를 붙여 차별대우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마을회의에서 벌금을 부과 받는데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과거에는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인도에서 교회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독교단체나 협회를 등록하기도 쉽지 않다. 관련 기관에 힌두교 과격주의자들이 있거나 이들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 힌두 과격주의자들은 거의 매일 교회를 감시하고 방해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공격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반

발을 불러일으킨다. 설혹 교회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정부기관의 부패와 불필요한 절차들로 인해 오래된 교회 건물을 수리할 수 없다.

교회 내 외부 활동은 기독교로 개종하기 위한 행위로 인식하기 때문에 정부 당국이 허용해도 지역사회와 힌두교 과격주의자들은 용납하지 않는다. 2014년 인도인민당이 정권을 잡은 이후, 모든 기독교단체와 기관들은 의무적으로 활동보고를 하게 됐다. 기독교를 공격할 때, 이들은 이 기록을 근거로 교회지도자나 목회자를 대상으로 삼고, 지역주민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이들을 폭행하기도 한다.

### 힌두교도가 언론 장악 90% 이상

언론매체도 대부분 힌두교도가 장악하고 있다. 방송매체는 90% 이상이 상류층 힌두교인들로 채워져 있는데, 이들은 언제나 기독교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다. 지역방송은 기독교에 대한 왜곡된 내용의 방송으로 힌두교 시청자들의 분노를 유발한다.

이러한 잘못된 보도가 나가면,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은 교회를 찾아와 기물파괴, 신성모독뿐 아니라 십자가를 훼손하기도 한다. 또 경찰은 신성모독법에 따라, 목회자들을 법정에서 세우고 투옥한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은 19세기 영국 식민지 시절, 인도인차별법에서 비롯됐다. 케이블 TV방송은 힌두교 단체의 압력으로 기독교 콘텐츠들을 제거하고 힌두교 관련 콘텐츠나 채널을 늘리려고 한다. 인도는 1960년 후반부터 선교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으며, 해외 기독교 선교사들의 입국뿐 아니라 해외 NGO 근무자들이나 신문방송 기자들도 비자발급이 어렵다. [GNPNEWS]

기획 | 베트남 선교 열전(16) - 베트남 전쟁 전후시기 선교 이야기

## 자라이어 성경, 찬송 잇따라 번역돼 성도들 '감격'

이 연재는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베트남에 입국한 찰리, 에그룡 선교사 부부가 전쟁의 참화 가운데서 복음의 통로가 된 과정과 베트남 주민들의 상황을 담고 있다. 대하드라마처럼 펼쳐지고 있는 베트남의 현대 선교사(史)를 이들의 회고록 '베트남에 사랑을 담아'(To vietnam with Love)를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 성경 번역 작업과 교회 성장

1972년 공산주의자들의 공세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다. 1968년 구정 공세로 남쪽의 공산주의자들은 거의 처리된 후였다. 북쪽은 월맹 정규군들의 공세로 전환되었고 미군 부대는 베트남에서 철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월맹군이 캄보디아에서 오는 도로로 접근해 월남을 또 남북으로 갈라놓게 된다는 소문이 돌았다. 플레이꾸나 짜오 래오가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었다. 그때 나는 생명을 다 바친다 해도 자라이어 성경 번역을 마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번역을 도왔던 왕과 브로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내 기도는 매우 간절해졌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붙들었다. 성령이 나를 도우셨

다. 번역하는 일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되었다.

식사시간도 잊은 채 밤낮 번역 작업에 매달렸다. 나는 자라이어 사람들의 일상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리고 드디어 6주에 걸쳐 로마서 번역을 마쳤다. 자라이어족 세 명에게 감수를 의뢰했는데, 그 중 한 명이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나를 찾아왔다. 손에는 결장이 너털너털해진 원고가 들려있었다. 그가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정말 굉장한 책이네요. 특히 6장이요. 한 권 줄 수 있어요?" 그렇게 성경은 살아있는 말로 번역되어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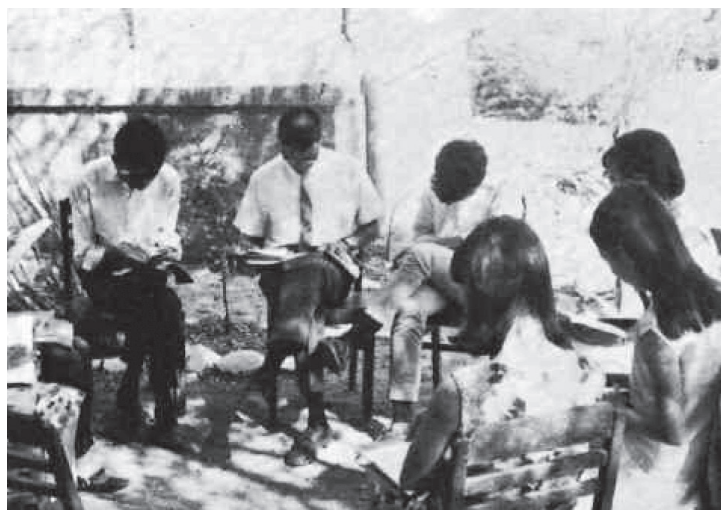
자라이어 성경 번역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다. 아내는 찬송가 번역을 시도하고 있었는데, 자라이어 부족의 문화와 고유 음조를 사용하려고 요청하였으나 매번 거절당했다. 자라이어족들은 자신들의 노래가 귀신 송배와 음란한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사이공에서 자라이어 찬송을 처음 불렀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웠다.

그즈음 여러 가지 바쁜 일정과

제안들이 있었다. 급한 일은 말레이시아의 다랏 스쿨에서 1년간 여학생 기숙사 사감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안식년을 맞은 15가정이 본국으로 떠나면서 일손이 부족했다. CMA 선교사 자녀를 위한 학교였지만 후방에서 하는 목회 사역은 가장 마지막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했다. 사람들은 베트남을 떠나는 나에게 섭섭해 하는 대신 그것이 가장 합당한 일이라고 이해해줬다. 베트남에 처음 올 때는 28개의 남쪽 소수부족 중 10개 미만에만 크리스찬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28개 부족 전체에 크리스찬들이 예배하는 것을 보고 나올 수 있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

### "저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다랏의 기숙사 사감으로 있으면서 일주일에 90시간 이상 성경번역에 집중했다. 하지만 나는 굉장히 지쳐있었다. 가끔 위에 통증과 경련이 있었다. 근처 기독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별다른 이상을 찾지 못했다. 병원 침대에 누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에 말씀이 떠올랐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 청년 캠프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모습(출처: CMA)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사 40:11)"

갑자기 내가 어린양으로 보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린 양으로 사랑받아야 할 시간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나는 한참 동안 할 말을 잃었다. 18살에 주님을 만난 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바쁜 사역에 쫓겨 정작 주님이 내 삶에 거하지 못하고 나도 주님의 품속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제가 주인의 품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날 이후에 의사가 회진을 왔다. 나는 그날 주님과 대화 담긴 일기를 의사에게 읽어주었다. 그것을 다 읽었을 때 의사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말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를 위해 기도하며 베트남을 휩쓸고 갔던 부흥의 실체를 느꼈다.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깊은 감동이였다. 병원에서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교제는 지금까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에게 지속되고 있다.<계속> [GNPNEWS]



### 선교 통신

## 미국 교회, 파키스탄 벽돌 공장 노예 상태의 기독교인 4500명 '해방'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14세 미만 아동노동 만연



▶ 벽돌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파키스탄의 한 가정(출처: dawn.com).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 해안에 있는 한 교회 성도들 400명이 파키스탄에서 탈레반에게 붙잡혀 12개가 넘는 벽돌 공장에서 노예상태로 일하던 4500명의 기독교인들을 해방시켰다고 최근 미국 가티포트가 보도했다.

이 일을 이끈 사람은 은퇴 이발사인 폴(가명.73)과 파키스탄 가정교회 지도자인 타리크 목사.

몇 년 전 파키스탄의 탈레반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미국으로 건

너가 얼마간 체류한 경험이 있는 타리크 목사는 당시 남부 캘리포니아 교회를 방문하게 됐다. 그는 파키스탄 기독교인의 교육과 현지 벽돌공장에서 노예로 일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자유의 몸으로 해방시키는 것이 자신의 비전이라고 말했다.

타리크 목사는 "파키스탄의 대부분의 벽돌들은 기독교인 노예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무슬림은 이런 종류의 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 파키스탄에 5만6000개의 벽돌 공장

이 있으며, 모두 기독교인 노예들이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폴은 "파키스탄에서 노예는 불법이지만 기독교인들은 종이나 다른 없는 계약하인으로 간주된다. 파키스탄 기독교인들은 노예라는 가혹한 현실 속에 살고 있다. 또한 14살 미만 아이들의 노동 또한 불법이지만, 벽돌 공장은 14세 미만 아이들로 가득 차 있다. 정부는 이를 알면서도 아이들의 학대를 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 파키스탄 대부분의 벽돌 기독교인 노예들에 의해 만들어져

그 이후 남부 캘리포니아 교회와 타리크 목사는 함께 학교를 시작하고 파키스탄 기독교인 노예들을 해방하는 데 힘을 쏟기 시작했다.

폴은 학교 건설비용과 노예 해방에 필요한 현금을 모금해 파키스탄에 다시 찾아갔다. 먼저 찾아간 한 벽돌 공장에서 동물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볼 수 있었다. 만약 그들이 하루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거나 도망치다 잡히

면 손가락을 잘랐다. 거 곳에서 야기를 안고 일하는 한 여성을 봤다. 아기는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이 아버지 시몬은 이미 세 개의 손가락과 오른손 엄지가 잘려 있었다. 그는 남은 손가락으로 벽돌을 만들고 있었다.

폴은 결국 이 가족의 빚을 갚고 노예에서 해방시켰다. 이후 본격적으로 사역이 진행되어 첫 번째 사역에서 48명, 두 번째 사역에서는 60명의 노예가 풀려났다. 한 가족을 해방시키는데는 평균 600~700달러가 들었다.

타리크 목사는 세번을 방문해, 584개 가정의 대략 4500명의 사람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켰다. 타리크 목사는 이 사실을 남부 캘리포니아 교회에 알렸고 교회는 단시간 내에 9만6000달러를 모금해 네번째 사역을 시작했다.

폴과 그의 팀은 파키스탄에 도착해 타리크 목사와 함께 탈레반 벽돌 공장 주인을 찾아갔다. 폴은 "탈레반 공장주는 한 가족 당 1000달러를 요구했고, 우리가 그에 대해

항의하자 공장주 경비들이 총을 겨누었다. 위험한 상황에서 나는 탈레반 공장주에게 나이를 물었는데 그가 73세라고 했고, '나 역시 73세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할 순간을 맞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가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내 신장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 다음날 우리는 풀려난 노예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역 4일째 되는 날에는 타리크 목사의 제안으로 현지에서 복음전도집회를 갖고, 그 모임에서 두 명의 무슬림 성직자가 회심하는 일이 일어났다.

폴은 "캘리포니아에 돌아온 후 타리크 목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복음 전파 기도회 모임 때 회심한 무슬림 성직자가 우르두(Urdu)어 성경 1000권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의 아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고 덧붙였다. [GNPNEWS]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 “공홀사역 통해 고아와 과부를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김정화 선교사**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 삶을 통째로 드렸다. 그리고 후퇴 없이 전진하며 순종해왔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주님의 허락하심으로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사역의 한 복판으로 초대받았다. 단순한 구제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공홀사역을 통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있는 김정화 선교사(전능자의 그늘 미니스트리·ShAM(웹)대표)를 만났다.



- 어떻게 공홀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2012년에 사역일정 때문에 당시 사역을 하던 미국을 떠나 한국에 잠시 들어왔을 때였어요. 제가 국내에 입국하기 일주일 전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죠. 어머니의 상황은 안타까우나 선교사로서 저의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역지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입국 비자가 거절됐어요. 모든 계획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던 중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의 치매 증세가 급속히 악화됐다면서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두 분을, 공동체로 살고 있는 저희 선교센터로 모실 수밖에 없었어요. 함께 살고 있는 선교센터 공동체 가족들이 배려를 해 주신 덕분이죠.”

- 주님이 불가피한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군요.

“영혼을 섬기는 일이 선교사의 사역인데 당장 어려운 처지에 있던 연로하신 부모님을 외면할 수 없었죠. 그러다 아버지도 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힘이 드셔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결국 오갈 데 없는 어머니만 저희 선교센터에 남게 됐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이런 처지에 있는 분들의 상황을 돌아보게 됐어요. 선교완성을 목표로 전력 질주하던 저의 계획에는 없었지만, 주님의 허락하심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기도하던 중 이 땅에서 버림받고 오갈 데 없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일이 저의 일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즈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교사님에게도 주님이 같은 마음을 주셔서 예기치 못한 공홀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 비자 거절, 치매 어머니 봉양

- 공홀사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주세요.

“어려운 누군가를 돌보는 일로 반긴 했지만, 처음에는 분명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께 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날이 갈수록 어머니의 증세가 더욱 악화됐어요. 그러다 마침 서산의 한 폐교를 선교센터로 활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동시에 인도의 사원에 팔려가는 아이들을 구출해 신앙으로 양육했던 에이미 카마이클의 도나부르 공동체가 생각났고, 지금도 죽음으로 내몰리는 아이들을 위한 피난처인 베이비 박스에 관한 소식도 듣게 됐죠.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야고보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진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임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 나이 드신 과부, 아이들로 구체화됐어요.”

-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게 된 것이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첫 계명은 모든 성도가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계명이잖아요.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가 사역의 현장에 있으면 이 일들에 대해 소홀해지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를 세우신 목적이 사랑이 식어지는 마지막 때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로 성도들이 서로 돕고 일깨우는 역할임을 알게 됐어요. 마태복음 22장에 임금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각자의 일로 분주해서 아무도 잔치에 응하지 않자 임금이 거리에 나가 모든 사람들로 자리를 채우라고 하시잖아요.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주변에 하나님의 공홀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가기 원하시는구나.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 세속에 물들지 않는 진짜 경건

사랑이 식어지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사랑 흘려보내는 통로로  
성도들을 일깨우는 역할

### 주님께 드리는 진짜 헌신

나를 내려놓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 모든 주권을  
주님께 위임하는 것

됐어요.”

- 이전에 이와 같은 사역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오, 한 번도 생각해 본적 없어요. 선교사로 헌신한 것도 저의 계획이 아니듯이 말이죠. 지금 치매 걸리신 어머니는 친 어머니가 아니라 저를 길러주신 어머니예요. 한 달도 채 안된 피투성이인 저를 양어머니가 거뒀주셨죠. 어머니의 인생 마지막 즈음에 저를 끼어들게 하시면서 제가 어떤 섬김을 받았는지 주님이 기억나게 하세요. 고스란히 같은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라워요. 주의 마음이 깨달아지니 저를 향한 이 부르심이 특별한 은혜란 사실을 알게 됐어요.”

### 어머니 섬김 통해 유년시절의 은혜 깨달아

- 사역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삶으로 인도받은 것이군요.

“맞아요. 제가 정말 사역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현장에서 사람들을 훈련하고, 세워 성취감이 생기면 제가 뭘 하고 있다는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마치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 양 생각했구요. 공홀사역을 하면서는 제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어요. 사역이라고 해봤

자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아이와 어른을 돌보는 정도가 전부였으니까요. 이전에도 믿음이었지만, 더욱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그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제게 어떤 성취감이 주어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며 인내하고 믿는 삶을 살도록 지난 3년 동안 신실하게 일해 주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제 마음이 높아져 있었는지 알게 됐어요. 높아진 마음을 허무시고 빈껍데기인 저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세요.”

-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선교사님의 삶을 들어보고 싶네요.

“각자 인생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정말 특별한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원하셔서 여러 부인을 두셨는데, 저는 그 중 한 분에게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딸을 낳은 저의 생모는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한 달 만에 저를 버리고 집을 나갔어요. 이런 상황과 환경들을 알고 자랐으니 저는 소극적이고, 우울한 삶을 살았죠. 대학교 졸업 후, 저는 승무원이 됐어요. 회사 취직 후 두 번째 비행 중, 우연히 언니뻘 되는 한국인을 만나게 됐어요. 그 언니를 통해 교회에 나가게 됐죠. 3년 정도는 주일만 교회에 나가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자 열심히 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점점 그 사랑이 깨달아지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제 삶을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 그렇게 헌신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당시 제게는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했거든요. 그러나 그 무렵 감격뿐이었지 갈라디아서 2장20절 말씀처럼 예수님과 제가 함께 죽은 십자가를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그런 말 자체를 저는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모르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전도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죽으라 하시면 죽는 시늉까지 할 수 있었는데, 이 일을 순종할 수는 없더군요. 그렇게 씨름하다 96년, 전도자 훈련을 통해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운명적인 사건을 허락하셨어요. 진짜 제 안에 저를 내려놓는 일은 죽음이더군요. 아니 진짜 죽었어요.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모든 주권을 주님께 넘겨 드리는 헌신을 하게 하

셨어요.”

- 그 후 어떤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되셨나요?

“함께 전도자로 헌신했던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며 순회선교단이라는 단체를 세우게 하셨어요. 선교사도 많은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하나? 고민하다 선교지들을 돌아보니 한 목적을 위해 조건 없이 섬기면서 연합하고 있지 않는 현장을 보게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사역에 고정된 단체가 아니라 돌아다니며 연합을 이루자. 그런데 그마저도 우리의 힘으로 큰 연합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 안에서조차 연합이 불가능했거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저 우리는 순종할 뿐이지 우리로서는 할 수 없구나. 이 복음을 살아가는 것 또한 기도가 열쇠임을 알게 되면서 저희의 부르심이 더욱 구체화 되었죠. 그 후 이 공홀사역으로 옮겨주셨어요. 저를 이 영역에 순종하게 하셔야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으니까 이 자리로 불러 주신 것 같아요.”

### 믿음 재정으로 공홀사역 시작

- 현재의 공홀사역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두 사람의 전임선교사와 선교사로 헌신한 두 사람이 함께 살면서 현재 훈련과정에 있어요. 파트타임 동역자들도 계시구요. 하나님 앞에 드러진 영적인 과부일 뿐만 아니라 실제 과부들을 불러 함께 하고 싶어요. 한 달에 한 번 매월 셋째 주에 정기기도모임이 있고, 일주일에 두 번 말씀기도모임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이를 키우는 첫 1년은 영원히 이 일을 해야 할 것 같아 두려웠는데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기쁨이 넘쳐나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복음과 기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영적으로 공급받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 믿음의 걸음을 걷는 동안 잊지 못할 특별한 만남이 있으신가요?

“사람들을 만날 기회는 참 적어요. 그래도 가장 잊지 못할 만남은 지금 양육하는 우리 모세와 시우와의 만남이 아닐까요. 지난 2014년 12월에 태어난 지 12일 만에 출생신고도 안 된 한 아이를 만나게 됐어요. 선배 선교사님이 '모세'라고 불렀는데, 그게 아이 이름이 됐어요. 두 번째 아이인 시우는 이년 전에 알게 됐는데, 최근에 오게 됐어요. 부모 사랑 독차지하고 커야 할 나이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겠어요. 이제야 제 아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6면에 계속>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복음의 빛을 발하라(5)

##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할 자 누구인가?

다니엘과 같이 역사의 무대 위에 우뚝 서 있는 사람을 보면 대체로 '특별한 기회를 부여받은 행운아'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다니엘처럼 흑독하고 외롭고 모진 길을 걸어간 사람도 많지 않다. 다니엘은 신흥 바벨론 제국이 강한 힘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았다.

다니엘의 조국 이스라엘은 이미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천 수백 년 동안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끊임없는 사랑을 받으면서도 이스라엘은 악착스럽게 반역했다. 결국 주님의 이름을 짓밟으며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다가 인간이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역사에 길이길이 남기며 무서운 징계를 받아 망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돼지 피가 뿌려졌고,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성물(聖物)은 원수들의 전리품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 주셨던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셨다. 예루살렘은 저주받은 땅이라는 상

징으로 전락해 버렸다.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 하나님의 선민(選民) 이스라엘은 이름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 다 끝장난 그곳에서 길모퉁이에 버려진 찢먹이의 허가 입천장에 붙어서 말라



죽어가고 있었다. 아이의 죽음을 본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슴이 녹아내리는 고통으로 인해 눈이 눈물에 상해 버렸다.

그때 끔찍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포로가 되어 끌려간 소년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선택을 받아 바벨론 제국의 왕실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다. 동포들이 죽어가는 마당에 살아서 끌려간 그들의 운명을 행운으로 보아야 할까? 차라리 죽은 사람이 행복하다고 할 만큼 그들은 목숨이 늘 남의 손에 달려 있는 노예에 불과했다. 그들은

실력을 쌓는다 해도 정상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다해봐야 포로 출신 노예였다. 아침마다 살아 있다는 걸 늘 확인해야 할 정도로 피 말리는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던 그들이었다. 누구보다 뛰어난 생존본능을 갖추고, 살아남는 일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겼을 수 있다.

믿음의 삶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제국의 특별 교육을 받았지만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는 그들에게 오늘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게 기적이었다.

### 포로가 되어 끌려간 다니엘

이런 상황에서 역사를 뚫어내었던 그의 고백을 들어 보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단 1:8)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오게 하는 통로로 쓰임 받을 사람에게 주님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보이는가?

오늘 하루를 더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동물농장의 짐승과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다니엘은 '주제 파악'을 못한 채 뜻을 정했다. 포로에게 '자기 뜻'이 있으면 안 된다. 자기 뜻과 상관없이 강제로 끌려 온 포로가 자기 뜻을 정했다니! 이게 무슨 의미인가? "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난 이 거룩함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비록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고하게 살아가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이 음란하고 사악하고 반(反)도덕적이며 진리를 대적하는 캠퍼스 한복판에서 십자가 자랑하고, 올곧은 믿음으로 '왕따'를 당하고, 사람대접 못 받고 병신 취급당해도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당당히 걸어 나가지 않겠는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더러운 사상이나 철학, 대세의 유행에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고고하게 살아보지 않겠는가? 다 해봤자 '왕따' 좀 당하는 것 밖에 없지 않은가?

다니엘의 고백은 연습 삼아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환관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곧바로 목숨을 내놔야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뜻을 정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2014.8 메시지 정리)<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단)

## 복음과 기도 메시지 오디오 CD 시리즈



각 오디오CD(2장 한세트) 6,000원 (택배비 별도)

메시지가 CD 2장에 수록되어 있으며, 30분씩 4개의 트랙으로 편집, 수록되어 있습니다.

### 김용의 선교사 메시지

- \* 경건의 열망 \_디도서 2:11~14
- \*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_마가복음 2:1~12
- \*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 \_요한일서 3:16
- \*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사람들 \_말라기 3:17

구입문의

야긴과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5면에 이어>

Interview

### 이 시대의 어머니들, '존경합니다'

- 센터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날마다 주님을 구하는 믿음 재정의 원리로 저희 사역이 이어져 왔어요. 처음에는 한 분을 통해서 주님이 재정을 주셨어요. 어느 날은 꽤 큰 규모의 헌금이 들어와 저희가 거할 수 있는 건물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어요. 다음날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서 주님이 재정을 허락해 주셔서 현재 이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난 5월에 입주감사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함께 동참하고 계세요."  
- 사역하시면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많이 보실 텐데 위로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최근에 보게 된 글귀인데요. 문제 없이 형통한 상황 가운데서 볼 수 없던 것들을 마음이 가난해져서야 비로소 보바로

발견했다는 말인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래요.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것들을 지금 경험하면서 마음이 낮아지고,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 가는 것 같아요. 이 시대의 어머니들을 정말 존경하게 됐어요. 이전에 참 행복하고 좋았다가 아니라 지금 이 시기가 가장 귀한 보배를 발견할 기회인 것 같을 것 같아요."  
- 끝으로 기도제목을 나눠주세요.  
"금후한 마음을 품은 분들이 더 오셔서 저희와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아이들이 이곳에 보내져서 하나님의 손길로 양육되면 좋겠어요. 우리 사역이 모델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열방 곳곳에 흘러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GNPNEWS]

S.Y.



믿음의 삶

# 복음기도신문 번역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2014년 9월, 복음기도신문 번역팀의 부르심에 순종했다. 주님은 당시 여러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 이 부르심을 확증해주시기도 했다. 시작되지도 않았던 사역이어서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부르심 앞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멘하게 하셨다. 내가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때부터 실제 믿음의 싸움은 시작됐다. 아멘!으로 대답했던 패기는 어디로 갔는지 2주마다 찾아오는 기사번역의 마감은 언제 부턴가 부담이 되었다. 영어를 전공한 것도, 외국에서 오래 살았던 것도 아니었다. 번역경험이 전혀 없던 내게 A4 한 장이 넘어가는 분량의 글을 번역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번역할 기사를 대할 때면 충분히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구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묵상도 하지 않고 번역에만 급급해하는 나를 보게 되었다. 기사를 마주할 때마다 나의 지식과 경험에 의지하려는 것이 드러났다. 주님이

일 하실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함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고전 1:27)이 말씀을 내게 허락하시며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됨을 보이셨다. 나의 지혜를 의지하던 어리석음으로부터 돌이켜 주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게 하셨다. 날 부르신 주님편의 끈질긴 신실하심이었다.

### 또 다시 돌아온 마감일

어느 날 잔뜩 쌓인 일들로 마음이 분주했다. 달력을 보니 곧 원고 마감일이었다. 순간 주님께 공알만한 목소리로 투정을 부렸다. ‘주님! 저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데, 이번 기사는 왜 이렇게 분량도 많나요. 전 정말 못하겠습니다. 이 일을 할 자격이 없어요!’ 그때 기다리셨다는 듯 하나님은 내가 당신을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부로 의지하기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일을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교제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마음까지 덧붙여 주셨다. 나로서 되지 않는 그때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그 음성은 너무 따뜻했다. 기쁨으로 총만 하여 컴퓨터 앞에서 번역을 시작하는데, 기사 내용 하나하나가 모두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다. 그리고 나의 고백이 되게 하셨다.

번역한 후, 다시 점검해 볼 때마다 나는 놀라곤 한다. 내 능력 이상의 표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분명히 내가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주님의 완전한 개입에 감사와 찬양이 멈추지 않는다. 그럼에도 호시탐탐 경험과 지식으로 했다고 말하고 싶은 나.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은 나. 주님은 이런 나를 이전 년 전 십자가에서 이미 나와 함께 죽으시고 주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노라고 계속 말씀해주셨다. 날이 갈수록 은혜를 알면서도 “주님, 그래도 제가 왕이고 싶은데요.”라

고 고백하는 나를 사랑으로 잠식시키시고, 참 자랑이 되어주신다.

세상의 인정을 갈구하고 흠모하던 내게 인정받지 않아도 주님이 나의 만족이며 상급이라는 고백을 신실하게 받아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번역을 시작하며 주신 약속의 말씀을 상고해보니 얼마나 신실하신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

번역을 하면서 신실하게 열방이 돌이키기를 촉구하시는 주님의 마음도 함께 본다. 모든 열방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시는 그 날까지! 복음의 영광을 누리는 자리에서 잃어버린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 더 많은 이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한다. 오직 믿음으로 충성스런 하인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께서 친히 하십니다. 할렐루야! [GNPNEWS]

최인혜



## “나를 열방의 제물로 태워 쓰시옵소서”

한 학기 동안 전도를 하면서 주님은 나에게 복음이 실제 되는 전도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 처음 전도를 대하는 나의 반응은 ‘두려움’이었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사람로부터 어떤 반응들이 나올지, 시작부터 두려움 때문에 멀리하게 되었던 전도였다. 그래서 학기 초에는 이 두려움과 싸우느라 잘 전도하지 못하였다. 늘 언니, 오빠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조리 있게 말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다.

난 언니, 오빠들이 말도 잘하고 두려움이 없어서 전도를 잘하는 줄 알았다. 반면 나는 전도를 잘하지 못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주님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말씀으로 전도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 전도는 화려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게 아니었다.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논리적인 말로 설득시키는 것도 아니었다. 전도는 그저 나에게 실제된 복음, 나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

이었다.

말을 잘하라는 것도 아니고 당장에 열매를 내라는 것도 아니고 내게 실제 된 복음을 전하라는 데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용기를



내어 난생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다. 거리에 서기까지 많은 믿음이 필요했다. 정말 내겐 개혁과 같은 일이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말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실제 된 복음, 그것만 사람들에게 전해주자.’라는 마음으로 썼다. 그리고 “여러분!” 한 마디 외쳤는데, 내 목소리가 어지간히 컸는지 오빠들이 외칠 때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이 나를 다 한 번씩 쳐다보고 갔다. ‘저렇게 어려 보이고 작아 보이는 여자애가 왜 저기 서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쳐다본 것 같다. 하지만 주님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질그릇을 깨뜨리셔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다.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와 같이 너무 작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구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다시 내 마음 가운데 울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 복음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선포했다. 그러다 한 남학생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다. 평소 같았으면 눈길을 피했을 텐데 내게 실제 된 복음이 그들에게도 실제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부여지자 그 남학생을 똑바로 바라보며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다. 물론 남학생이 먼저 눈길을 피하기는 했지만 말이다.

### 길거리에 서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정말 기뻐! 복음을 선포하면서 내가 복음 때문에 감격하게 되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복음을 주셨는지! 결코 그 어떤 것으로도 행복을 누릴 수 없었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구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다시 내 마음 가운데 울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 복음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선포했다. 그러다 한 남학생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다. 평소 같았으면 눈길을 피했을 텐데 내게 실제 된 복음이 그들에게도 실제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부여지자 그 남학생을 똑바로 바라보며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다. 물론 남학생이 먼저 눈길을 피하기는 했지만 말이다.

내게 실제 된 복음을 선포할 때, 어설피고 마지막에 말이 꼬이기도 했다.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도 생각이 잘 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게 실제 된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말미암아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일하셨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이 질그릇이 깨어짐으로 주님이 드러날 것이다! 사랑하는 주님, 나를 열방의 제물로 태워 쓰시고 어서 오시옵소서! [GNPNEWS]

장은유(18)

### 나의 소망

## “나는 너를 거절하지 않았다”

브루스 울슨은 19세에 선교사로 헌신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남미로 부르신다고 믿었다. 하지만 선교단체는 그를 떨어뜨렸다. 낙심한 그는 다시 대학에 등록했다. 남미에 대해서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그를 부르셨다. “하지만 주님, 저는 거절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나는 너를 거절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너를 거절할지라도 나는 너를 거절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그를 선교사로 부르신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에게로의 부르심이 있었다. 그는 홀로 남미로 가서 모달론 인디언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다.



뷰즈인 시네마

Views in Cinema '나의 선택 - 잊혀진 가방 그 못다한 이야기'

# 가방에서 내 꿈과 계획을 꺼내고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채우다



다큐멘터리 | 한국 | 김상철  
84분 | 전체 관람가 | 2011

선교사들은 언젠가는 돌아와서 사용될지도 모를 소지품들을 가방에 넣어 모아두고 선교지로 떠난다. 최근 그 가방에 얹힌 한 편의 영화를 봤다. 아프리카로 떠나며 영국 볼스트로드 지역의 한 창고에 놓아두고 떠난 가방 주인의 발자취를 따라 찍은 다큐멘터리 영화 '나의 선택 - 잊혀진 가방 그 못다한 이야기'.

이 영화는 미래가 보장되고 안락

했을 고국의 생활을 뒤로하고, 내전과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른 증인들의 생생한 간증을 담고 있다. 이 영화를 통해 우리 인생의 가방에 자신의 야망으로 가득찬 것들을 버리고 주님으로부터 온 가장 가치 있는 소명과 목적을 채워 넣게 될 것을 확신한다.

아프리카 콩고를 섬긴 필립 우드 선교사 부부의 가방 이야기는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그들은 의사였고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가져온 가방을 선교단체 본부 지하 창고에 두고 아프리카 콩고로 떠났다. 38년 동안 주인을 기다린 가방 안에는 케임브리지 의대 졸업장, 우수상장, 아내의 연애편지, 아프리카 전통책이 들어 있었다. 이 가방의 주인은 선교지로 떠났지만 처음 마음과 사명이라는 짐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또한 그 속에는 자신의 사명과 목적을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들도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부인 낸시 우드 선교사에게 "당신은 큰 차, 큰 집,

좋은 직업 없이 선교사로 사는 것에 대해 후회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고 당당히 답했다. 그들은 황금빛 인생을 주님께 드렸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았다.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는 1924년에 26세의 나이로 콩고에 들어가 86세까지 사역했다. 그녀 역시 케임브리지 의대출신이었다. 그녀는 예수님을 위해 고난 받는 것이 특권이라고 고백한다. 어느날 주님이 그녀에게 질문하신다. "반군에 포로로 잡혀가 성폭행을 당하고 총살대 앞에서 감사할 수 있니?" 하지만 그녀는 "아니요, 주님!"이라고 대답했다. 주님은 "그러나 나는 너를 믿어. 내가 너를 믿는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니?"라고 또다시 물으셨다.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런데도 그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자 비로소 감사할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그 당시 헬렌의 친구들은 잔인하

게 순교 당했다. 친구 빌 맥체스니는 28세의 나이에 순교 당하는 순간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 "만약 그가 하나님 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어떤 희생을 드린들 그보다 더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내가 바로 그 일을 하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 가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선택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헬렌은 그 일 이후에 다시 콩고로 돌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

한국인 이민을 선교사의 사연도 소개된다. 사랑하려고 갔던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의 생명을 강도들에게 빼앗겼다. 자식을 잃은 아픔을 겪으면서 그는 아들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체휼하는 시간을 보낸다. 마침내 그는 강도들을 용서하고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간다. "내게 주신 고통이 빛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미래와 명예, 학벌, 아름다움도 뒤로 하고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었을까?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듯하다. 이 땅에서의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나의 꿈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자신의 가방에 채워 넣은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시 나의 소명을 상기시켜 주었다. 만약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잊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주님 앞에 머무르자. 한 선교사의 고백을 소개하며 소명을 되찾기를 기도한다.

"소명이 점점 희미해지고 절망감에 빠져 그만 내려놓고 싶어질 때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처음으로 돌아가 부르심에 대해 다시 기억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부탁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그분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맡기신 일들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GNPNEWS]

박희영 선교사



##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 아이에 대한 훈계, 메아리가 되어 내게 돌아오다

나는 네 아이의 엄마다. 9살, 8살, 6살, 3살. 아이 숫자로는 베테랑 엄마가 될 법도 하다. 그러나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매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며 주님께 묻는다. 아이들을 다음세대 선교사로 키우겠다는 사명감 때문에 아이들과 편하게 지내다가도 어느새 아이들과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벌인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하는 예배의 자리는 더욱 그렇다.

어느 날, 책을 보고 있던 아이가 예배가 시작되자마자 내 마음을 낙담시키는 말을 했다. "또 예배예요? 엄마, 오늘은 조금만 짧게 해주세요." 예배드리는 내내 궁금한 것이 많은 아이의 질문에 답하다 보면 예배 시간은 길어지게 마련이다. 그런데 요즘 아이가 예배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무거운 눈꺼풀을 주체하지 못하고 꾸벅꾸벅 조는 횟수가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화요중보기도 시간에도 거의 책상에 뺨을 만큼 잠들었다가 마치면 아빠의 품에 안겨서 돌아오기 일쑤였다. 왜 이리 잠이 많을까? 그러던 어느 날, 예배가 시작되자마자 졸기 시작하던 아이가 마지막 기도를 마치고 동시에 언제 졸았

냐 싶을 만큼 정신이 말뚱말뚱해졌다. 그리고 바로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알미움과 속상한 마음이 교차했다.

아이를 앉혀놓고 이야기했다. "아들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네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네 행동이 말해주지 않니? 너의 고백과 실제의 모습이 너무 다르잖아. 우리 주님의 마음을 구하자."라고 한참을 이야기했다. 아이는 인정을 하는 것 같더니 곧 잠이 들었다.

### 예배 시작과 함께 조는 아이에게 이야기하다

안타까움과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다. 기도 중에 내 모습이 생각났다. 피곤하고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자주 놓치게 되는 열방을 위한 24·365기도의 자리. "너무 졸려요. 주님 오늘만 봐주세요."하며 지나쳤던 부끄러운 내 모습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나를 똑 닮았구나. 사실은 내 모습이었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기뻐해야지." 라고 아이에게 했던 말이 메아리



가 되어 고스란히 나에게 들려왔다. 주님께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주님이 묵상하게 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말씀이었다. 주님은 아직도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셨다. '아이들과의 믿음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내가 다 안다. 그런데 앞으로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어!'라고 말씀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에 감사와 용기를 얻어 믿음으로 지도를 펴들고 열방을 경영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 주님이 하셨다.

그 후 주님 앞에 얻은 기회를 놓칠 수 없어 특별한 사역이 없는 한 아이들과 말씀기도를 했다. 앞으로 졸지 않는다는 확신은 없지만 이 작은 변화 앞에 주님께 마음을 쏟

아 기도하게 되었다.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시 2:6) 아멘. 열방에 어떠한 어려움과 잔인함과 공격들이 우리를 요동케 할지라도 그보다 크신 하나님은 시온산 위에 왕을 세우셨다.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 대적에게 요동치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시는 멋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아이를 통해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주님은 선하시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정과 아이들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대구·경북지역과 온 열방에 선포한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까지. [GNPNEWS] 이혜진

### 구독신청 안내

아래의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해주세요.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 후원자 명단

2016. 7. 1 ~ 7. 22 (가나다 순)

#### 개인

권혜령 김경선 김민성 김수미 김승수 김영세 김영임 김유남 김재희 김정대 안병윤 오경숙 오승섭 유자인 윤경석 이경희 이복길 이 순 이주영 이준희 이지수 임인자 임종태 장근혜 장영선 전인숙 정영숙 조상국 진훈화 차인순 천경은 최근희 최 미 최영란 최정숙 하은숙 허금희 무명

####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검단교회 겨자씨선교회 김포전원교회 동명교회 마하나임심대교회 반석중앙교회 발내살롱교회 새소망교회 순회선교단 WMM다음세대팀 웹 시흥교회 양덕원감리교회 은혜신일교회 인천주님의교회 전주은누리교회 주만교회 죽전교회 하원교회 헤브론원형학교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산로 167(별내동)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경기, 다5046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